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심에 감사하며 그 미션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성중에 내 백성 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10b)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2월 5일 (토) 제 156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종교 자유’ 위해 미국으로 온다!

### CT, 2003년부터 미국 재정착한 지구촌 크리스천 난민통계 및 시리아 난민수용 전망 보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참사에도 시리아 난민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반기를 든 미국의 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늘고 있다. 미연론에 따르면 최근 미시간·앨라배마·텍사스·아칸소·일리노이·인디애나·루이지애나·미시시피·매사추세츠·애리조나·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뉴햄프셔·플로리다·메인 주 등 미국 50개 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6개 주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동참하는 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용의자 중 일부가 유럽으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침투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집권한 뉴햄프셔 주를 제외한 15개 주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집권한 곳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6개 주의 주지사들은 한결같이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각 주로 유입될 시리아 난민 중 테러단체와 연계된 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 거부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연방정부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수용과 각 주로의 분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파리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리아 난민 수용 논란에 맞춰 지난 2003년부터 미국으로 정착하기 위해 떠난 이른바 “오늘날의 청교도(Today's Pilgrims)”에 대한 통계를 보도하고 있다(Here's Where America's 338,000 Christian Refugees Come From: Evangelical, Catholic, Baptist, Pentecostal, and other resettled believers hail from quite different countries).

시리아 난민 허용 여부와 함께 맞물려서, 미국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유입된 크리스천들의 비율이다.

난민수용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미국에 재정착한 크리스천들은 지구촌 각지에서 338,441명이다. 전체 재정착 난민이 762,000명으로, 크리스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4% 정도에 이른다.

이들을 국가별, 교단별로 분류해보면: △2003년부터 재정착하기 시작한 “크리스천들”은 거의 180,000명에 이른다. 과반수 이상이 미얀마/버마(96,531), 그리고 이라크(25,128), 이란(19,968), 라이베리아(12,335), 부탄(8,216)에서 왔다.

△캐톨릭 난민들이 57,178명으로 재정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쿠바(15,805)와 이라크(14,580)가 거의 30% 이상으로, 미얀마(4,973)나 콩고(4,496) 그리고 수단(3,988)보다 압도적이다.

△개신교인 난민 숫자 14,754는 훨씬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을 특정 개신교 교단에 속했다고 말한 난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미국에 재정착한 개신교인들은 콩고(5,203)가 가장 많고, 베트남(2,393) 그리고 수단(1,458) 등이다.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난민들(2,677) 역시 국가별로 분류된다.



난민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요즘 기독교 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재정착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이 쿠바를 떠나왔고(1,422), 수단(237), 우크라이나(196), 콜롬비아(148), 그리고 라이베리아(108)에서 왔다. △전체 크리스천 난민들 중, 10%는 오순절 교인들이다(31,778).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동유럽 출신으로, 33% 정도가 우크라이나(11,067)에서 왔고, 콩고(6,222), 브룬디(3,985), 몰도바(2,102),

베라루스(1,831)에서 왔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23,247) 중, 미얀마(5,980)와 우크라이나(5,937)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몰도바(4,043).

△감리교인들 중 많은 난민들은 아프리카 출신(3,305)이다. 콩고(1,007), 브룬디(987) 그리고 라이베리아(535)에서 왔다. (3면으로 계속)

#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Christianbook.com, 마크 러니어 저서 “법정에 선 기독교”  
통해 하나님 존재 증명과 사역 소개

마크 러니어(Mark Lanier)는 미국 변호사들 중 탑 클래스에 속한 크리스천이다. 그는 ‘러니어 로펌’을 설립한 변호사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면 피해 소송과 미국 최초의 바이옥스 재판을 비롯해 수많은 굵직한 사건들을 재판정에서 다뤘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9년 연속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도 그의 활약상을 소개했으며, 2013년에는 ‘탑클래스 집단 소송 변호사’로 뽑혔다. CNBC와 폭스 뉴스에 자주 출연하고, 투표를 통해 ‘텍사스 슈퍼 변호사’로 선정될 만큼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성경학자이자 기독교 강연가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신학도서관인 ‘러니어 신학도서관’을 설립했고(www.LanierTheologicalLibrary.org), ‘성경문맹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며(www.biblical-literacy.org), 매주 챔퍼넌포레스트침례교회에서 성경문학을 가르친다. 3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연구해온 그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사건들을 다룬 경험들을 통해,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허점을 공략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명쾌한 변론으로 기독교 신앙이 타당함을 증명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러니어의 사역을 “법정과 인생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재치 있고 매력적인 사역자로, 마크 러니어는 기독교 신앙이 믿을 만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마크 러니어는 미국 법조계에서 진실을 찾고 수호하는 일로 나무랄 데 없는 경력을 쌓았다. 이제 그는 법조인의 눈으로 성경을 변호하면서(Christianity on Trial: A Lawyer Examines the Christian Faith), 신앙이라는 근본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조인 눈으로 성경 변호... 최후진술 후 질문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가 하는 일의 이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기독교는 참 편협한 종교야.”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논리를 따지며 균형을 원한다. 하지만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식의 ‘뻔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임은 확실한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낼 자신이 없다. 특히 기독교에 호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때로 나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우리는 한 재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개인 금전화 사전에 막아야 한다!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7면  
조진모 목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8면  
윤병이 목사



복음서 이야기 14면  
박시경 박사



인터뷰 16면  
유태용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4): 2015년 한 해를 보내며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2015년 올미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삶을 영위해갈 수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곤 합니다. 필자가 사는 북가주 지역의 한인교회들에서도 동상에 문제로 폭풍이 몰아다쳐서 지역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두 장로교회들이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담임목회자들이 교단의 동성에 지원 정책에 반대해서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몸담고 있던 사랑하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힘겹게 교회 건축까지 해서 마련한 성전을 버리고 당장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 떠나야만 했던 그 심정을 짐작해볼만 합니다. 물론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교인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남기로 했다고 오명의 소리조차 듣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교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도 지은 성전을 왜 포기하고 떠나야하는지 항변하는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방황하는 연약한 부평초 교인들을 흡수해서 교인 수를 늘려볼까 하는 절박한 이웃 교회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이러한 영적 공격에도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최근에 성전을 구입하고 입당 준비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와 이번 일로 등지를 잃은 교회가 연합하려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 주일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두 교회가 정식으로 연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두 기업이나 단체가 합병하려해도 무수히 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두 기업의 재정상태에서부터 리더십의 공존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단합과 직무들을 정리 조정하는 결코 쉽지 않은 난관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하는 작업도 끈질긴 인내와 대화의 시간을 요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연합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며 교인 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인고와 기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목회자나 지도자들 몇 명이 강제로 관철시키려할 때는 수많은 양들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어려운 인생과 사역의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보이고 어려서어 보이는 앞길이기이기에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나하는 믿을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후시 잘못되어도 하나님 뜻으로 선택했으니 내게는 잘못이 없고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한다는 책임전가의 불순한 심리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회개도 해봅니다. 신약성경에 30여 번이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텔레마'가 왜 영어로는 딜레마(교착상태에 빠짐, 두 결정 앞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해 하는 심적 상황을 일컫는 말)로 변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간의 뜻으로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선하신 권 운전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급진화 사전에 막아야 한다!

뉴스위크, 퀴리엄재단 선임연구원 니키타 말리의 IS 격퇴전략 소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전면적인 지하디스트 붐기'를 경고했다.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로 그 붐기가 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붕기는 이념을 신봉하는 핵심 지지 세력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선 그런 세력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파리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은 전부 평범하게 살다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투신해 지하디스트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IS에 포섭된 이들은 시리아에서 훈련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와 범행을 계획했다.

이스마일 오마르 모스테파이(29)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13일 밤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에 난입한 용의자 중 1명(자폭했다)으로 지목된 그는 이전엔 테러리즘과 아무런 관련 없던 알제리계 파리 시민이었다. 그가 다니던 이슬람 사원의 관계자는 "IS가 직접 파견한 '방문 이맘'에 의해 급진주의에 몰들었음"이라고 귀띔했다. 모스테파이는 다섯 살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2013년 말 가족을 버리고 시리아로 건너가 IS의 훈련을 받았다. 그의 옛 이웃들은 "평범한 가정의 상냥한 청년이었다"고 돌이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파리 테러 발생 하루 전인 11월 12일 미국, 영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IS대원 무함마드 엠와지 역시 영국 런던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이슬람교도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급진주의자로 전향했다. '지하디 존'으로 불린 엠와지는 검은 복면 차림으로 IS가 외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에 즐근 등장에 서방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급진화시켰으며 인륜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What Makes a Jihadi?). 뉴스위크지가 반극단주의 싱크탱크 퀴리엄재단 선임연구원 니키타 말리의 IS 격퇴 전략을 소개했다.

유럽의 성난 젊은 무슬림 세대에 지하디즘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종, 종교 차별과 따돌림도 한 원인이자. 폭탄테러가 발생한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두 나라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그들이 이슬람주의 선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심히 우려된다. 더 격정적인 점은 IS의 공격으로 그들을 향한 증오와 비난이 증가하면 그 선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급진화의 기회도 그만큼



탈급진화 과정엔 재통합 프로그램 필수  
IS 메시지 반박, 불만이 폭력화 안되게 테러 희생자는 국적과 종교 다양 기억

는 '증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수십만의 중동 출신 젊은이가 이미 유럽에 정착했다"며, "이들이 이번 테러로 차별받는다면 극단주의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IS는 테러에 놀란 유럽이 문을 걸어 잠그길 바란다. 그들은 갈 곳 없는 분노한 난민을 IS 전투원으로 만들고 있다."

파리 테러는 규모와 정교한 조율을 고려할 때 알카에다 같은 단체의 과거 공격과 유사하다. IS가 선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듯이 폭력은 서방에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 사용된다. 서방이 드론 공격으로 지하디 존을 죽이고 영토의 일부를 빼앗아가도 IS는 십자군 프랑스(Crusader France, 과거 무슬림을 겨냥해

전쟁을 벌인 십자군에 프랑스 기사가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사실에 빗댄 표현)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확장되는 영토와 '유토피아'가 건설하라는 점을 과시한다. 그런 규모의 공격으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IS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만이 있다. 지하디스트는 불만과 이념의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그 이념은 극단주의 단체 가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11·13 파리 테러 후 IS에 대한 서방의 보복은 '서방이 사악하며 IS는 서방과 전쟁 중'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IS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종파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의 시신 부근에서 시리아 여권이 발견되자 시리아 난민을 향한 증오가 분출하면서 그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문이 증폭됐다. 이런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분노와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차별로 치달으면 테러단체의 이념적 요소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 대그들'이라는 이분법의 대치는 지양해야 한다.

이제 프랑스는 탈급진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의 급진화를 사전에 막는 것이 이미 급진화된 개인을 되돌리기보다 훨씬 쉽다. 급진화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상황 배제, 종교 교육의 결여 같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탈급진화 과정에는 재통합 프로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b>· 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b>· N.Y. Office</b>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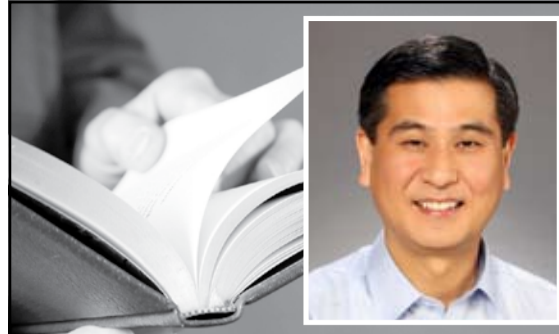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2)

이단은 영적 기생충과 같은 집단이다. 그들도 기독교의 진리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을 좇아 인용한다. 그들의 뿌리가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실망하고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지니게 된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사상과 신학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선별하고 추출해서 혁적인 문장을 키우는 일에 사용한다. 이단은 교회의 영적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질문: 초대교회는 313년 속사도 시대의 마감 전에 출현한 이단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였는가?

■ 이단과 공동체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배하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지만, 불완전한 모습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외부의 핍박과 시련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켰다. 어려움이 커져갈수록 그들은 서로를 향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다짐하고 격려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고난은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 영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도구이다.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결속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

열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단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금과 같이 신학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단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수용하던 그들의 마음을 혼들어놓았다. 신앙공동체가 함께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얻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이단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로 보았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것, 초대교회가 이단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치와 판단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서로 다른 자들이 함께 하나 됨'을 이루려면 반드시, 함께 공유하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 진리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 이상이다. 지적 활동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섭리하셨다.

초대교회가 신앙공동체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던 '그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성경에 기초한 신앙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식으로 서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두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신앙을 지니기 위하여,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교리를 세우려 하였다 것이었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으니, 성경의 정경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성경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여러 서신서와 요한의 계시록에 대한 여러 사본들을 말한다. 원본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이 되고, 그 사본이 또 다른 사람들의 손에 기록이 되는 형식으로 성경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퍼져나간 것이다.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의 정경화'라는 커다란 숙제를 마쳐야 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의 교리 체계는 어떠한가? 이단은 무엇이 다른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식으로서의 기독교는 교회나 성도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이다. '그 진리'는 곧 성경이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출발과 함께, 모든 신앙과 교리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갈라디아서 1:6-10; 디모데전서 6:3-6; 디모데후서 1:3-14; ;

이단의 출현과 함께 교회는 소위 '정통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단의 출현 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진리를 체계화 하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단을 단순히 정죄하고 교회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이단이 교회에 남긴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다. 거짓 진리를 받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놓은 성도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뿐 아니라, 막스럼치 않은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심지어 자신이 '정통 신앙'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고집하는 성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만일 그 진리나 경험이 어떤 것이지, 나의 삶과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 것을 참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단과 정통신앙 모두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만이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일 '그 진리'이다. 신앙이란, '그 진리'를 받아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 이단 출현으로 복음으로 결속된 초대교회공동체는 분열 아픔 경험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 정통 신앙 위해 성경의 정경화 작업 완성

■ 지식으로서의 신앙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그렇다고 '마음만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후대 교회에 전달된 진리를 존중히 여긴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절대로 금지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진리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자라온 배경과 문화가 전혀 다르고 삶의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단의 출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단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후대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로부터 분리되는 자들에 대한 아픔이었다.

'이단'은 무엇보다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겨난 것이 주를 이루지만, 이외에도 공동체에 대한 의도적인 반감 또는 개인의 야심과 탐욕이 원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식으로서의 신앙의 역할이 불가능 하였던 것은, 어둠과 차가운 그들의 마음에 '그 진리'가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것은 90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얌니아에서 모인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신약 27권은 397년이 되어서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경화가 이뤄지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글 이외에, 비록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되었던 책들(호모루구메나)과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권장할 수 없는 책들이 함께 공존하였기 때문이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주신 것을 검증하고 판단하여야 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 정말 그랬을까?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모세가 잘 생겨서 숨겨 키웠던 것일까?  
친구에게 웃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왜 창상과부애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군다나 이방인까지 한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랄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 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창29:17). 다행히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아유도 그녀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삼하11:2).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될 수 있었다(에2:7). 갈렙에서 큰 양떼를 치고 있었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으니" 그의 아내 아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삼상25:3). 그래서 다행히 그녀의 남편이 죽은 다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창39:6).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창39:7). 미모에 반했던 것이다.  
사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아예 위만 큼 더 컸더라"(삼상9:2). 이러한 그의 외모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바르가 히브리 사내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의 어머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릎 쓰고 세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키웠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출2:2).  
이상한 것이 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겨서 죽이지 않고 숨겨놓고 키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모세가 평범한 얼굴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살려두고, 못생겼다고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9면으로 계속)

#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b>2015년 1월</b>	<b>5월</b>	11월 ~ 14일 19일 ~ 22일 22일 ~ 31일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2014년 1월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1월 ~ 10일 10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0일 10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1월 ~ 14일 19일 ~ 22일 22일 ~ 31일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2014년 1월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1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2014년 1월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11월 ~ 14일 14일 ~ 21일 21일 ~ 31일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2014년 1월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충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제29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의철 목사) 제29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이 12월 7일(월) 오전 11시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01)600-7343

**뉴저지 사모회 찬양팀 음악회**  
 뉴저지 사모회(회장 함미상 사모) 찬양팀인 사모니아(지휘 이은희, 반주 이미리)가 12월 12일(토) 잉글우드 병원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문의: (973)626-0856, (201)693-0693.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12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뉴저지 오피스에서 열린다.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참가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참가비는 200달러. 저소득층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장학금을 후원한다.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신성국 목사 소천**  
 1963년 뉴욕한인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뉴욕교협 4대 회장을 역임한 신성국 목사가 11월 22일 오후 3시 워싱턴DC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환송예배는 11월 29일 오후 7시 버지니아에 위치한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열렸으며, 고인은 메릴랜드에 있는 Norbeck Memorial Gardens에 안장됐다.  
 ▲연락처: (301)996-4272.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2차 실행위원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 제 2차 실행위원회가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 할렐루야뉴욕교회(이미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825-5204



뉴욕장로연합회 35차 월례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권근식 회장, 4번째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 뉴욕장로연합회,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초청 35차 월례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는 11월 23일 오후 7시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제 35차 월례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장로연합회는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를 설교자로 초청했다.  
 이날 예배는 우화선 장로 사회로, 김영호 장로(상임교무)의 대표기도 후 이종명 목사가 “생각을 바꾸자”(왕하5: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고난당하는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김기환 장로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 후에는 제42 회기 이종명 목사의 뉴욕교협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11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축하케의 커팅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 신임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상호 집사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1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대표 송병기 목사, 사무총장 공재규 전도사)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제 21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에 황영송 목사를 선임했다. 이사장은 뉴욕교협 평신도 부회장인 이상호 집사가 자동 선임됐다.  
 황영송 목사는 뉴욕교협 임원단이 함께한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송병기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 설교 황영송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송 목사는 창세기 43장 1-15

절을 본문으로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리더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 제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나 리더나 목회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아곱의 집이 가장 어려운 때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유다가 개입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상황을 해결한 유다를 통해 예수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해 목사가 된 황 목사는 “오늘날 한인교회에 주어진 청소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며, “이민교회에 차세대

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생명 건 헌신으로 차세대를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상호 집사 사회로,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보고, 프로그램 보고 등을 하고 임원선거를 했다.  
 송병기 목사는 차기 대표로 황영송 목사(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를 추천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장은 교협평신도 부회장이 맡는 관례에 따라 이상호 안수집사가 선임됐다.  
 2015년 결산은 우드사이드 건물 매각 후 남은 금액을 교협건물 구입에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97,802.65달러로 보고했으며 2016년 예산은 116,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8% 정도 증액됐다.  
 청소년센터는 2015년에 성탄절 모금과, 부모교실(뉴욕, 뉴저지, 토요일어), 농구대회, 유스할렐루야대회 등을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가 신임대표 황영송 목사, 그 왼쪽이 이상호 신임이사장.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실행위원, 후원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 “당신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2015 해외 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지난 29일 저녁 6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전희수 회장은 “지금 지구촌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굶주림과의 전쟁에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며 매년 사망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많은 것이 있으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멋지게 쓰겠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작은 것이 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며, “월 30달러를 통해 어린 생명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은 부자가 되는 것을 타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후원자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부 사역소개는 권케더린 목사(회계)의 사회로 환영인사 전희수 회장, 축사/감사 황동익 고문, 임원 소개, 후원자 소개, 사역영상(예루), 후원사역 간증 오태환 국내선교국장, 이엘리사 사모, 최재복 부이사장, 후원안내 임병남 홍보국장, 특별찬양 뉴욕사모합창단, 김인식 목사/이주현 사모, 광고 김영환 사무총장, 폐회기도 박진하 고문, 만찬 기도 장경혜 해외선교국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후원자 모두에게는 동 기구의 책자 ‘오병이어’와 머그컵, 볼펜 등의 선물이기도 제공됐다.  
 2007년 설립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4년 콜롬비아 단기선교에 이어 2015년 페루 단기선교를 했으며, 이번 후원자의 밤을 계기로 2016년에는 콜롬비아 모기장과 볼렝크 사역, 아프리카 코드 디브라르 아동결연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동 기구는 현재 6개국(북한포함)에 140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모임을 갖은후 기념촬영 했다.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모임 이영훈 목사, 뉴욕교협에 약정 총5만불 전달

뉴욕교협 42회기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을 초청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지난 회기에 새 교협건물을 방문했을 당시 약정했던 총 5만 달러 중 남은 금액 4만 달러를 뉴욕교협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후원금은 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양승호 목사(우)와 총무 이정환 목사가 전달했다.  
 증경회장단 회장 허걸 목사의 인도로 뉴욕교협의 양대 단체의 신임 회장인 뉴욕교협 이종명 회장과 뉴

욕목사회 김영환 회장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명 교협회장은 “많은 분들이 42회기에 새로운 기대를 거는데, 뭔가 다르게 개선된 교협운영을 위해 지난주에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모범적이며 투명한 교협운영을 약속한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영환 목사회 회장은 “어렵게 회장인 만큼 열심히 목사님들을 섬기겠다. 목사회가 일취월장하고, 기도하는 목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서로 격려 존중하는 관계...훌륭한 멘토 되자 미주한인여성목회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가 지난 1일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뉴욕교협 건물에서 가진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감사-이웃사랑 나눔 및 우리들의 이야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조상숙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은희 목사, 성경봉독 김성숙 목사, 특송 살렘찬양단, 말씀 장경혜 목사, 봉헌기도 남승분 목사, 광고 장만자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경혜 목사는 “멘토 이야기”(빌

3:1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의 멘토요 목회 멘토였던 주 관준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쉬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사역 기간 동안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목회자협의회가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2부 감사는 권케더린 목사 사회로 축사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성금 전달, 축시 배임순 목사(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간증 김에스터 목사(개신교수도원 부원장), 찬양 뉴저지지원회장, 시낭독 장현숙 목사(주

바라기꽃, 하얀 사람), 찬양 김수경 목사(나의 소망), 간증 전인숙 목사(Mission is my work, Follow Jesus), 색소폰 연주 유상열 목사(Deck the Hall 외), 폐회기도 이미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성금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개신교수도원, 도르가의 집, The 2nd Life Foundation, 거리의 식탁, 새생명선교회, 아가페노숙자교회, 병원선교회, 농아인교회 등 9개 단체에 전달됐다.  
 간증순서에서 개신교수도원 부원장인 김에스터 목사는 울해 말로 3년간 무료로 사용했던 장소가 폐쇄되고 새로운 장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 간증했다.  
 또 브루스에서 목회를 하는 전인숙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현재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솔직하게 간증해 동료목회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3부 교제 시간은 박현숙 목사의 오찬감사기도 후 시작돼 푸짐한 오찬을 즐겼다. 오찬 후에는 12주 성경아카데미 강의가 이어졌다. 이 성경아카데미는 12월 15일(화) 오후 12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오상연 목사)에서 종강파티 및 수료예배를 드린다.  
 (유원정 기자)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강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함!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